



우리카드 우리WON은 최근 2시즌 연속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1위를 달리던 2019~2020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에 종료됐다. 2020~21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로 '볼배구'에 나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랐지만, 대한항공에 가로막혔다. 지난여름 KOVO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우리카드는 2021~2022시즌 사상 첫 V리그 정상에 도전한다.

우리카드 2021~2022시즌 예상 스타팅 오더



Li 정지원 이상욱 김영준

※ OPP=라이트, WS=레프트, MB=센터, S=세터, Li=리베로

원업진 : 류윤식, 송희재, 김원준(이상 레프트), 이강원, 최현규(라이트), 이상현, 장준호, 지태환(이상 센터), 이호건, 홍기선, 김광일(이상 세터)

IN&OUT

IN
지태환(삼성화재에서 자유신분선수), 이상현, 김영준, 김원준(이상 신인), 이강원(삼성화재에서 트레이드), 송희재(전 연역)

OUT
김동선, 신동광, 임승규, 한정훈(이상 자유신분선수)

최근 6시즌 우리카드 성적

시즌	정규리그 성적(순위)	볼 배구 성적	감독
2020~2021	23승13패·승점 67(2)	챔피언 진출	신영철
2019~2020	25승7패·승점 69(1)	시즌 조기종료	신영철
2018~2019	20승16패·승점 62(3)	PO서 탈락	신영철
2017~2018	14승22패·승점 46(6)	진출 실패	김상우
2016~2017	17승19패·승점 55(5)	진출 실패	김상우
2015~2016	7승29패·승점 21(7)	진출 실패	김상우

V리그 개막특집 | KOVO컵 우승으로 자신감 충전한 우리카드



최근 2시즌 연속 정상 문턱에서 좌절한 우리카드는 거듭된 악몽을 딛고 더 높이 비상을 꿈꾼다. 부상자 속출로 10명의 선수들로만 나선 KOVO컵에서 우승한 덕분에 자신감이 한껏 오른 우리카드 선수단은 당당히 새 시즌 V리그 정상을 노린다.

“올 시즌 우승은 우리”

KOVO컵 전 경기 챔피언처럼 생각 선수단 심리적 중압감 해소에 도움 아빠가 된 주장 나경복 큰 동기부여 신영철 감독 “주전·백업 격차 적다”

6일 인천송림체육관에서 만난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의 의지는 결연했다. 2시즌 연속 우승 좌절로 간절함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이번 시즌 목표한 것이 있다”며 시즌 준비과정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신 감독 개인적으로도 우승이 목마르다. 2010~2011시즌 대한항공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챔피언전에서 삼성화재에 완패했다. “분명히 우승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며 “단기전에선 그날의 히어로가 나와야 하는데, 삼성화재엔 가빈 슈미트가 있었다”고 회상

했다. 다시 챔피언전에 오른 2011~2012시즌에도 현대캐피탈에 밀리며 잡혀 준 우승에 머물렀다. 올해는 다르다. 신 감독은 “일단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 내용을 개선하다 보면 우승에 가까워질 것이다. 준비과정을 착실하게 잘 밟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KOVO컵 우승으로 자신감 충전

새 시즌 개막에 앞서 펼쳐진 KOVO컵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었다. 당시 부상자들이 많아 10명 규모의 선수단으로 출전했지만, 2015년 이후 6년 만에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사실 우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신 감독은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팀들도 우리를 결코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자체로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 외에도 얻은 것이 있다. KOVO컵에 참가해 일정을 완주한 것만으로도 좋은 시뮬레이션이 됐다. 예상외의 변수, 뻘뻘한 일정은 우승을 목표로 삼은 우리카드에 ‘챔피언 결정전 모의고사’가 됐다. 신 감독은 “주장인 (나)경복이에게 매 경기 결승전으로 생각하자고 했다. 나중에 챔피언전에 나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클러치 북’ 나경복을 믿어봐!

주장 나경복(27)은 KOVO컵 우승에 앞장서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알렉스 대신 라이트로 출전해 공격을 이끌며 새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낳았다. 정작 당사자는 “우승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은 좋지만 이미 끝난 대회다. 이번 시즌은 매 경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15~2016시즌 우리카드에 입단한 나경복은 어느덧 프로 7년차에 접어들었다. 데뷔 초반 결정적 상황에서 번번이 실수를 범해 한때 ‘나기북’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실수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 득점하면서 이제는 ‘클러치 북’으로 불리고 있다. “‘기북’이라는 별명 없애고 싶었다. 새 별명이 언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 걸맞은 활약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나경복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생겼다. 올 봄 팔을 얻은 그는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아이가 태어나서 오버하진 않으려 한다. 다만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에서 진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인천 |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탄탄한 선수층·최저 범실…우리카드의 이유있는 자신감

알렉스 재계약·신인 김영준 기대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이 2021~2022시즌을 앞두고 자신감에 차 있는 이유가 있다. 부임 후 어느 때보다 탄탄한 전력 덕분이다. “다른 어느 시즌보다도 선발과 백업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작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일단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 대부분을 지켰다. 공격의 핵심 라이트 알렉스와 재계약했고, 자유계약(FA) 대상자였던 하현웅과 최석기를 잔류시키며 탄탄한 선

터진도 구축했다. 신인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할 만하다. 우리카드는 신인드래프트에서 이상현(센터), 김영준(리베로), 김완중(레프트)을 선발했다. 특히 김영준은 즉시전력감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음 시즌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삼성화재에서 영입한 이강원 역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은 “알렉스가 지켰을 때 라이트 포지션에서 활약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카드는 남자부 7개 팀 중 범실이 가장 적다. 신 감독이 부임한 2018~2019시

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113경기, 436세트를 치러 2288개의 범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팀은 창단 후 처음으로 ‘볼배구’를 경험했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됐다.

“좋은 자세로 좋은 리듬에서 나온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나쁜 자세에서 나쁜 습관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신 감독은 훈련 상황에서 피드백을 중시한다. 선수들은 신 감독이 던지는 끝없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수가 나올 때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가 잘못됐 것 같아?”라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된다. 자신의 플레이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신 감독만의 지도법이다. 나경복은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던지신다. 왜 범실이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신다”고 밝혔다.

물론 신임선수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최근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이들은 신인들과 가장 마지막에 영입된 이강원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경복은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일부러 새로운 선수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신다”고 설명했다. 인천 | 이승우 기자

“가장 강한 팀은 우리카드”…선수들이 꼽은 우승후보

V리그 남자부 미디어데이

선수 7명 중 5명이 우리카드 지목 OK금융그룹 레오는 경계대상 1호



2021~2022시즌 V리그가 16일 개막하는 가운데 남자부에선 우리카드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다. 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은 1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7개 팀 감독과 대표선수들이 참가한 남자부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대한항공 토미틸리카이네 감독을 비롯해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 OK금융그룹 석진욱 감독, KB손해보험 후인정 감독, 한국전력 장병철 감독, 현대캐피탈 최대웅 감독, 삼성화재 고희진 감독이 참석해 새 시즌 준비상황과 목

표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선수들이 생각하는 2021~2022시즌 우승 후보였다. 아직 시즌이 개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연습경기를 통해 상대의 전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7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들의 지목을 받은 팀은 우리카드였다. 7명 중 5명이 우리카드의 우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임동혁과 OK금융그룹 조재성은 자신의 팀을 우승 후보로 뽑은 반면 스스로 우승 후보로 찍은 우리카드 나경복을 비롯해 최민호(현대캐피탈), 서재덕(한국전력), 황승빈(삼성화재), 김정호(KB손해보험) 등이 우리카드에 한 표를 행사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대한항공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여름 KOVO컵 우승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나경복은 “이번 시즌 선수단의 변화가 거의 없다. 주전들이 거의 바

뀌지 않은 점을 선수들(다른 팀)이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 선수들의 뜻대로 우승하겠다”며 웃었다. 우리카드 외국인선수 알렉스도 “감사한 일이다. 지난 시즌엔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의 실수로 우승을 놓쳤다”며 이번 시즌은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선수들 중에선 레오(OK금융그룹)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2012~2013시즌 자유계약선수로 삼성화재에 입단한 뒤 2014~2015시즌까지 활약하며 V리그 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던 레오는 중국과 중동을 거쳐 7시즌 만에 OK금융그룹을 통해 V리그로 복귀했다. 상대 감독들은 경계대상 1호로 레오를 지목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기량은 녹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레오는 “그동안 팀에 적응하느라 바빴다”며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2021~2022시즌 V리그 개막을 앞두고 남자부 미디어데이가 13일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각 팀 핵심선수들은 2시즌 연속 정상 문턱에서 좌절한 우리카드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우승트로피에 손을 얹은 7개 구단 감독들.

사진제공 | KOVO